

무전공학과, 의대증원 등 '변수' 대학별 반영영역 체크는 '필수'

2025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인원(34만 934명)의 20.4%인 6만9453명으로 전년 대비 2811명 감소했다. 정시모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은 수능위주 전형이다. 수능위주 전형은 정시모집 인원의 91.9%를 차지하며, 6만3827명을 선발한다. 이어 실기·실적위주 전형에서 7.5%인 5224명을 선발하며, ▲학생부위주(종합)전형 183명 ▲학생부위주(교과)전형 174명 ▲기타 전형 45명을 선발한다.

202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다. 각 대학은 이 기간에 3일 이상 입학원서를 접수하며, 원서접수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학생 선발 전형은 '가'군 모집은 2025년 1월 7일부터 14일, '나'군 모집은 1월 15일부터 22일, '다'군 모집은 1월 23일부터 2월 4일 사이에 진행된다. 군별 1회씩 총 3회 지원 가능하며, 합격 후에는 한 곳에만 최종 등록할 수 있다.

최초 합격자 발표는 2025년 2월 7일까지다. 합격자 등록은 일주일가량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정시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은 2월 19일 18시까지다.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는 개별통보만 가능하다. 정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은 2월 20일까지며, 추가모집은 2월 21일부터 28일까지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KU자유전공학부' 신설, 수능 반영방법 등 변경사항 확인해야



전 계열 수능 반영 영역·방법 변경
학교폭력 조치사항 감점표 기반 감점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으로 총 1364명을 모집한다. KU일반학생전형(정원내)은 가군 534명, 나군 562명, 다군 123명 등 총 1219명 선발하고, 기초생활및차상위전형(정원외)에서 63명,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에서 80명,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정원내)에서 2명을 선발한다.

올해 가장 주요한 변동 사항 중 하나는 무전공(KU자유전공학부) 및 각 단과대 내 자유전공학부의 신설이다. 정시 인원으로는 KU자유전공학부가 가군에서 60명, 공과대학자유전공학부가 다군에서 60명을 선발한다. 공과대학자



건국대는 올해 무전공 및 각 단과대 내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했다. /건국대

유전공학부 외의 각 단과대 자유전공학부는 수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시에 정시로 인원을 모집한다.

건국대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 및 방법을 변경했다.

먼저 자연 계열과 수의예과에 있던

수학과 탐구 선택과목 지정이 폐지됐다. 또, 기존 '인문', '자연', '예체능'의 계열 구분이 '언어중심(A)', '수리중심(B)', '예체능'과 신설된 'KU자유전공학부'로 변경됐다.

언어중심(A)은 국어 40% 수학 30% 탐구 20% 영어 10%를 반영한다. 해당



박중효 입학처장

되는 모집단위는 문과대학 전체 학과, 사범대학 중 일어교육과, 교육공학과, 영어교육과, 예술디자인대학의 의상디자인학과-인문계, 매체연기학과다. 매체연기학과는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 시 선발한다.

수리중심(B)은 국어 30% 수학 40% 탐구 20% 영어 10%를 반영하며, 이에 해당되는 모집단위는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부동산과학원, 건국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융합과학기술원, 생명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사범대학의 수학교육과다.

예체능은 국어 45%, 영어 25%를 반영하고, 수학과 탐구 영역 중 반영 점수가 높은 영역을 30% 반영한다. 해당하

는 모집 단위는 의상디자인학과-인문계와 매체연기학과를 제외한 예술디자인대학의 학과들, 사범대학의 체육교육과와 음악교육과다.

KU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언어중심(A)과 수리중심(B)을 모두 적용한 뒤, 둘 중 더 높은 점수를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올해 건국대 정시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내용도 달라졌다.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항목에 따른 감점표를 기반으로 총점 1000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건국대 정시 원서접수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다. 전체 정시지원자 최초합격자 발표는 2월 6일 오후 2시이며, 등록기간은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다. 추가합격자 발표는 2월 13일부터 19일 18시까지 진행된다.

전체 모집인원 45.6% 정시 선발... 캠퍼스 구분 없는 모집군 배치



모든 계열서 필수 응시 지정과목 폐지
계열별 탐구영역 가산점... 각 4점씩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는 정시모집에서 총 2422명(전체모집인원의 45.6%)을 선발한다. 전형별로 수능위주전형에서 2197명을, 실기위주전형으로 225명을 선발한다. 수능위주전형의 모집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15명 증가했다. 원서접수는 오는 2024년 12월 31일 오전 10시부터 1월 3일 오후 6시까지 4일간 진행된다.

경희대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는 모집단위에 변경사항이 있다. 지난해까지 서울캠퍼스 자율전공학부로 선발하던 무전공 모집단위를 확대해 국제캠퍼스에 자유전공학부로 신설 확대해 정시가



경희대는 국제캠퍼스까지 무전공 모집단위를 확대했다. /경희대

군에서 선발한다. 수능 반영계열은 자율전공학부는 사회계열, 자유전공학부는 자연계열 비율을 적용한다(단, 국제캠퍼스의 자유전공학부는 과학탐구 응시자 가산점 없음).

이과대학 정보디스플레이학과는 첨단학과 승인에 따라 미래정보디플레

이학부로 모집단위명을 변경하고 36명을 선발한다. 한방생명공학과와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는 학과 통합에 따라 생명과학대학의 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과,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는 신소재공학과로 모집단위명이 변경됐다.

경희대는 이번 정시모집에서 인문,



송주빈 입학처장

사회, 자연, 예술·체육계열로 모집 단위를 구분해 모집한다. 모든 계열에서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지정과목을 폐지했고, 계열별 반영 비율도 변경됐다.

인문계열은 전년도 대비 수학의 반영비율을 축소하고, 탐구 반영비율을 확대했다. 사회계열은 국어 반영비율 축소, 탐구 반영비율을 확대했다. 자연계열은 전년도 대비 수능 과목 영역별 반영비율의 변동은 없다. 인문, 사회, 자연, 예술·체육 계열별 수능 영역 반영 비율이 달라 표준점수의 단순 총점이 같더라도, 반영 비율이 높은 영역의 성적에 따라 수능 환산 점수에 차이가 생긴다.

수능 영역별로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를, 영어와 한국사는 본교의 등급별

환산 점수를 활용한다. 탐구 영역은 본교 자체 산출 백분위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한다. 탐구 영역의 백분위변환표준점수는 수능성적 개별 통지 이후,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학년도 정시부터 계열별 가산점을 도입했다. 인문계열 모집단위 지원자 중 사회탐구 응시자는 과목당 4점씩 가산점이 적용되고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자 중 과학탐구 응시자는 과목당 4점씩 가산된다.

합격자 발표는 가군과 나군의 '일반전형(수능위주)-인문/사회/자연'과 나군 예술(무용학부 제외), 나군 체육(스포츠키도학과, 태권도학과 제외)은 1월 24일 오후 6시, 나머지 전형은 2월 7일 오후 6시이다. 수시모집 이월 인원이 추가된 최종 모집인원은 정시 원서접수 전 경희대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